

# 개회예식

## 1. 시작송가

### 주여, 이제는 여기에

김민기 곡

Am Dm E Am C E  
 열 어 붙 은 저 하 늘 열 어 붙 은 저 별 판  
 아 아 - 거 리 여 - 외 - 로 운 거 리 여  
 Am Dm F B E  
 태 - 양 도 빛 들 - 잃 어 아 캄캄 한 저 가 난 - 의 거 리  
 거 절 당 한 손 길 - 들 의 아 캄캄 한 저 곤 옥 - 의 거 리  
 Am Dm G C  
 어 디 에 서 왔 나 열 굴 여 원 사 람 들  
 어 디 에 있 을 까 천 - 국 은 어 디 에  
 E Am B E Am D G  
 무 썸 찾 아 헤 매 이 나 저 눈 저 메 마 - 른 손 길 -  
 죽 음 저 편 푸 른 숲 에 아 거 기 에 -- 있 을 까 -  
 C Dm D G7  
 오 주 여 이 제 는 여 기 에 오 주 여 이 제 는 여 기 에  
 C E F D G  
 오 주 여 이 제 는 여 기 에 여 기 에 우리 와 함 께  
 C Dm A D G  
 오 주 여 이 제 는 여 기 에 오 주 여 이 제 는 여 기 에  
 C E F C F E  
 오 주 여 이 제 는 여 기 에 우리 와 함 께 하 소 서

- † 주여 우리 입을 열어 주소서.
-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리이다.
- † 하느님, 우리를 어서 구원주소서.
- 주여, 우리를 빨리 도와주소서.
-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 은혜로운 빛이여

- 은혜로운 빛이여,  
하늘에 계시며 영원하신  
성부의 찬란한 빛이여,  
거룩하시고 복되시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해 저무는 이 때에,  
우리는 황혼 빛을 바라보며,  
주님께 찬양의 노래를 부르나이다.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이여!

주님은 언제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오니,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의 성자여,  
온 세상으로부터 영광 받으소서.

## 말씀의 전례

### 2. 오늘의 시편

#### 74편

- 1 하느님, 어찌하여 끝까지 우리를 버리시며, ○ 어찌하여 당신 목장의 양떼에게 진노하십니까?
- 2 기억하소서. 한 옛날부터 당신께서 값주고 사신 ○ 이 백성을 기억하소서.  
¶ 당신 소유로 속량하신 이 지파를, ○ 당신의 처소로 정하신 시온 산을 기억하소서.
- 3 끝없는 폐허가 된 이곳으로 발길을 옮기소서. ○ 원수들이 성소 안을 휩쓸었습니다.
- 4 원수들은 당신의 백성이 모이는 곳에서 고향을 치며 ○ 승리의 표로 저희 기를 여기저기 꽃았습니다.
- 5, 6 그들은 나무를 찍는 나무꾼처럼 ○ 모든 문들을 도끼와 망치로 짓부수며,
- 7 당신의 성소에 불을 지르고 ○ 당신의 이름을 모신 성막을 뒤엎고 더럽혔습니다.
- 8 우리를 단번에 멸종시키리라 작정하고는 ○ 나라 안의 거룩한 예배소를, 모두 불질러 버렸습니다.
- 9 우리에게는 하늘의 표적도 없고, 예언자 또한 없어 ○ 이 일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 10 하느님, 언제까지 적군의 모욕을 참으시렵니

까? ○ 언제까지 원수들이, 당신의 이름을 모독하리이까?

11 어찌하여 당신 손을 사리시옵니까? ○ 어찌하여 오른손을 품안에 품고만 계시옵니까?

12 하느님은 처음부터 나의 임금님, ○ 땅 위 모든 곳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옵니다.

13 당신은 그 크신 힘으로 바다를 가르시고 ○ 바다 위에 솟은 괴물들의 머리를, 짓부수신 분이옵니다.

14 레비아단, 그 머리를 깨뜨리시고 ○ 그 고기로 사막의 짐승들을 먹이신 분이옵니다.

15 샘을 터뜨려 물길을 트시고 ○ 유유히 흐르는 강물도 말리셨습니다.

16 낮이 당신의 것이니, 밤 또한 당신의 것, ○ 해와 달을 제 자리에 놓으신 분도 당신이십니다.

17 땅의 경계들을 정하신 이도 당신이시요, ○ 여름과 겨울을 마련하신 이도 당신이십니다.

18 주여, 기억하소서. 원수들이 당신에게 악담을 퍼붓고 ○ 미련한 백성이 당신의 이름을 모독합니다.

19 산비둘기 같은 당신의 이 백성을 저 들짐승에게 넘겨주지 마소서. ○ 이 가련한 백성의 생명을 길이 잊지 마소서.

20 땅의 구석구석이 폭력의 도가니이오니 ○ 당신께서 맺어 주신 계약을 기억하소서.

21 억눌린 자, 부끄러워 물러가지 않게 하시고 ○ 가난하고 불행한 자, 당신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22 일어나소서. 하느님, 정의를 밝히소서. ○ 날마다 당신을 모독하는, 미련한 자를 기억하소서.

23 아우성치는 당신 원수들을 잊지 마소서. ○ 당신의 적대자들, 그 고향소리 높아만 갑니다.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 3. 십자가의 길 묵상

#### 순례자를 위한 기도

◎ 생명의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기를,  
 사랑스런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호하시기를,  
 성령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기를,  
 내 길의 발걸음마다,

나를 도우시며 나를 감싸시기를,  
 내 삶의 낮과 밤마다.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를,  
 사랑스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를,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를,  
 우리 길의 발걸음마다,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감싸시기를,  
 우리 삶의 낮과 밤마다.

#### 첫 번째.

#####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를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또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품으시어 새 생명을 주셨나이다.

† 예수는 가야바의 집에서 모욕과 누명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헤롯의 왕궁에서는 온갖 조롱을 다 받으셨으며 마침내 빌라도의 재판정에 끌려가 외로이 서셨습니다. 예수님의 등은 채찍으로 맞아 부풀어 있었고, 그의 머리에는 가시관이 씌워졌습니다. 그러나 끝내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묵상)

\* 이 세상에 생겨난 모든 것은 끝이 있고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너희 역시 죽을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출생과 죽음이 같은 창조이며 우리가 흠에서 나왔으니 흠으로 돌아갈 것임을 기억하여라.

◎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희생입니다. 부패한 종교지도자들과 비인간적인 제국의 지도자들의 결탁에 대항한 사랑의 길이자 고난의 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가 가진 죄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며, 그 오래 전에 굳어진 구원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회복의 길이 됩니다.

† 그러나 십자가는 대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보여주는 명시적 증언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에 동참함으로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고 세상 모든 만물과 이어집니다.

◎ 더 이상 우리는 주님 홀로 그 길을 가도록 외면하지 않을 겁니다.

#### 두 번째.

#####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다.

† 무거운 십자가는 예수의 어깨 위에 지워졌습니다. 주님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온 마음으로 그 고통이나 책망을 감수하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묵상)

\* 이 나무 십자가, 이 나무 기둥은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고르신 것이다. 오늘날에도 세계 도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지고 있다. 그들은 불의한 상황에 대하여 아무런 선

택권이 없이 나처럼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너희도 그분의 손에서 그 십자가를 받으라. 마음에 새겨 두어라. 나의 제자들아, 나의 벗들이여, 너희의 힘에 부치게 되는 그런 일은 결코 없으리니.

◎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희생입니다. 부패한 종교지도자들과 비인간적인 제국의 지도자들의 고향에 대항한 사랑의 길이자 고난의 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가 가진 죄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며, 그 오래 전에 굳어진 구원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회복의 길입니다.

† 그러나 십자가는 대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보여주는 명시적 증언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에 동참함으로써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고 세상 모든 만물과 이어집니다.

◎ 더 이상 우리는 주님 홀로 그 길을 가도록 외면하지 않을 겁니다.

### 세 번째.

#### 시몬, 예수를 돕다.

†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한 발자국도 걸어 갈 수 없었습니다. 병사들은 예수님을 따라 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강제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고통을 덜어 드리게 됨을 기뻐하였습니다.

(묵상)

\* 내 힘이 다 했다. 더 이상 혼자 십자가를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병사들이 시몬에게 나

를 돕게 했다. 이 시몬은 너희와 같다. 나의 제자들아, 나의 벗들이여, 내게 너희들의 힘을 달라. 너희들이 다른 사람의 등에 얹힌 짐을 덜어 줄 때마다 너는 바로 네 두 손으로 나를 짓누르는 저 십자가의 끔찍한 무게를 덜어 주는 것이다.

◎ 주님, 깨닫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웃에게 작은 친절을 나눌 때, 사람들이 기피하는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작은 정성으로 약한 사람을 도울 때, 주린 이들을 먹일 때, 헐벗은 이를 입힐 때, 우는 사람의 눈물을 씻어 줄 때,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싸우고 헌신할 때, 나의 이름은 곧 시몬임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제 이웃들에게 베푸는 사랑과 친절이 주님께 베푸는 것임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 그러나 십자가는 대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보여주는 명시적 증언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에 동참함으로써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고 세상 모든 만물과 이어집니다.

◎ 더 이상 우리는 주님 홀로 그 길을 가도록 외면하지 않을 겁니다.

### 네 번째.

#### 예수, 세 번째 쓰러지시다.

† 예수님은 갈보리 산에 거의 다 이르러 세 번째 땅에 쓰러지셨습니다. 하지만 잔인한 병사들은 인정사정없이 예수님을 때리고 일으켜 세워 골고다로 끌고 갔습니다. 병사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묵상)

\*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쓰러져 나는 그만 길가에 깔린 자갈 위에 누워 버린다. 몸을 꼼짝할 수가 없다. 아무리 때리고 발로 차도 몸을 일으킬 수가 없다. 하지만 아직도 내 의지는 나의 것이다. 이것을 알아두어라 나의 분신들아, 비록 너희들의 몸이 으스러지게 되더라도 지상의 그 어떤 힘도, 지옥의 그 어떤 힘도 너희 의지를 너희에게서 앗아갈 수는 없다. 너희들의 의지는 너희 것이다.

◎ 나의 주님, 저는 주님께서 잠시 쉬신 다음 다시 일어나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것을 봅니다.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의지는 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힘이 다 빠지고 죄와 자책감에 짓눌려 움직일 수조차 없게 여겨질 때, 저를 배반의 죄에서 보호하시고 절망에서 구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지은 그 어떤 죄라도 그 죄가 주님의 사랑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일이 결코 없게 해 주십시오. 제 과거가 어떠한 간에 저는 새로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십자가는 대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보여주는 명시적 증언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에 동참함으로써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고 세상 모든 만물과 이어집니다.

◎ 더 이상 우리는 주님 홀로 그 길을 가도록 외면하지 않을 겁니다.

**다섯 번째.**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 십자가를 땅위에 놓고 예수님의 팔과 손을 십자가 위에 펴게 하였습니다. 상처받으신 정결한 몸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 없이 하

느님께 바쳐지는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몸을 병사들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병사들은 저주하는 나무에 예수님의 두 팔목과 발등을 포개어 망치로 못 박았습니다. 순간 붉은 피가 땅을 적셨습니다.

(묵상)

\* 너희는 십자가 형벌이 어떤 것인지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느냐? 형 집행인들이 팔을 잡아 당겨서 손과 팔목을 나무에 붙들어 매고 못을 눌러서 살을 뚫는다. 그리고는 망치 한 번 세계 내리쳐 못을 박는다. 그러면 머릿속에서 천둥이 울리듯 고통스럽다. 그들은 다른 팔을 잡는다. 그러면 또다시 고통이 폭발한다. 그런 다음 무릎을 세워서 발이 나무에 딱 닿게 하고서 또 한번 망치를 휘둘러 내리친다.

◎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희생입니다. 부패한 종교지도자들과 비인간적인 제국의 지도자들의 결탁에 대항한 사랑의 길이자 고난의 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가 가진 죄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며, 그 오래 전에 굳어진 구원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회복의 길이 됩니다.

† 그러나 십자가는 대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보여주는 명시적 증언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에 동참함으로써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고 세상 모든 만물과 이어집니다.

◎ 더 이상 우리는 주님 홀로 그 길을 가도록 외면하지 않을 겁니다.

**여섯 번째.**

**예수, 숨을 거두시다.**

† 예수님은 오랜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죽음보다 더 견디기 힘든 순간을 예수님은 말없이 받아 들이셨습니다. 못 박힌 팔과 다리에서는 피가 흘러내려 땅을 붉게 적시는데 그 수난 중에서도 예수님은 회심하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 이루었다’ 는 말씀과 함께 운명하셨습니다.

(묵상)

\* 이제 나의 십자가는 복음을 선포하는 설교대가 된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너의 어머니이시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옵니다.”

말 한마디 하려면 팔목과 발에 힘을 주어 온 몸을 세워야 하고, 몸을 움직일 때마다 고통의 새 파도가 몰려 와 나를 삼킨다. 이제 견딜 만큼 견디고 나의 인간성을 모두 비워 냈을 때, 나는 이승의 목숨을 떠나보낸다.

◎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희생입니다. 부패한 종교지도자들과 비인간적인 제국의 지도자들의 결탁에 대항한 사랑의 길이자 고난의 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가 가진 죄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며, 그 오래 전에 굳어진 구원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회복의 길이 됩니다.

† 그러나 십자가는 대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보여주는 명시적

증언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에 동참함으로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고 세상 모든 만물과 이어집니다.

◎ 더 이상 우리는 주님 홀로 그 길을 가도록 외면하지 않을 겁니다.

**일곱 번째.**

**예수, 묻히시다.**

† 주님의 시신은 거룩한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제자들에게 정중히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아리마태 요셉이 준비한 새 무덤에 정중히 안장하였습니다. 해질 무렵에 동굴 입구를 돌로 막고 봉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영광스럽게 죽음을 깨고 승리의 부활이 올 때를 기다립니다.

(묵상)

☞ 이제 이 세상에 허락된 내 삶은 끝났다. 그러나 이제 마리아에게, 막달레나에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리고 너희에게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다. 사람으로서 나의 일은 끝났다. 그러나 내 교회를 통해 이뤄야 할 나의 일은 이제 시작이다. 나는 너희에게 기대한다. 나의 제자들아, 나의 벗들이여. 날이면 날마다 나의 제자가 되어라. 너는 나의 벗임을 잊지 말아라.

◎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희생입니다. 부패한 종교지도자들과 비인간적인 제국의 지도자들의 결탁에 대항한 사랑의 길이자 고난의 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가 가진 죄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며, 그 오래 전에 굳어진 구원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회복의 길이 됩니다.

† 그러나 십자가는 대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보여주는 명시적 증언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에 동참함으로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고 세상 모든 만물과 이어집니다.

◎ 더 이상 우리는 주님 홀로 그 길을 가도록 외면하지 않을 겁니다.

### 십자가의 길을 마무리하며

\* 나의 제자들아, 나의 벗들이여. 내가 내 죽음으로 생애를 장식할 때까지 내 생애는 미완성이었다. 너희의 길은 너희가 삶으로 그 길의 마지막을 장식하기까지는 완성되지 않으리라. 매순간 너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위에 내 표지가 찍혀 있음을 굳게 믿고 신뢰하면서, 너희에게 다가오는 매순간을 그대로 받아 들여라. 단순한 신앙, 이것만 있으면 된다. 네 영혼을 향해 속삭여라. ‘주님, 저는 원합니다. 하겠습니까.’ 그러니 나를 먼데서 찾지 말라. 나는 바로 옆에 있다. 너희 일터와 부엌, 다른 이들의 고통과 함께 하는 그 곳이 너희가 사랑을 바치는 제대이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 너희와 함께 있다. 이제 가라. 네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너희 삶으로 너희의 길을 완성하여라.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 아멘

십자가의 길 기도 참고자료

1. 성공회 서울교구 교육훈련국, 2013년 십자가의 길 자료
- 2.곽수영, 십자가의 길, 들숨날숨
3. 에스더 드 왈, 켈틱 기도 배우기

### 4. 대도

## 성찬의 전례

### 5. 평화의 인사

+ 여러분이 전에는 하느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느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에페 2:13)

+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 또한 그대와 함께 하소서.

+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누시라.

### 6. 봉헌

+ 이 빵은 주님의 몸을 위해서, 이 포도주는 주님의 피를 위해서, 이 예물은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제단에 드리오니 받아주소서. 아멘.

주집전자는 성찬 준비가 되었으면 다음의 성찬기도를 드린다.

### 7. 성찬기도

+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 또한 그대와 함께 하소서.

+ 마음을 드높이

◎ 주님께 올립니다.

+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 오직 한 분이시며 참되신 하느님 성부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님은 태초부터 우리가 영원히 미치지 못할 빛 속에 계시으며, 생명의 샘이시요, 모든 선의 근원이 되시나이다. 또한 주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축복으로 채우시며, 경이로운 빛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무수한 천사들이 밤낮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 빛나는 얼굴을 뵈오며 끊임없이 찬양하오니, 우리도 그들과 함께 하늘 아래 만물과 더불어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받으소서. 높은 데에 호산나.

† 지극한 영광과 권능 가운데 계신 거룩하신 하느님, 주께서는 지혜와 사랑으로 만물을 지으셨으며, 하느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주님께 순종하고 모든 피조물을 돌보며 살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순종으로 주님을 멀리 떠났을 때에도 우리를 죽음의 그늘 아래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게 하시어 크신 사랑을 나타내셨나이다.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구원의 복음을, 갇힌 자에게 자유를,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셨으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스스로 고난을 당하셨으나,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온 세상 피조물을 새롭게 하셨나이다.

성부 하느님께서로부터 영광 받으실 때가 이르러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과 만찬을 함께 하시던 중에, 빵을 들어 성부께 감사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또한 잔을 드시고 감사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와 많

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예를 드리며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부 오른편에 승천하심을 선포하나이다. 또한 영광 속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우리의 구원을 기념하여 이 빵과 포도주를 주님께 봉헌하나이다.

주여, 당신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우리와 이 예물 위에 성령을 내리시고 † 거룩하게 하시어, 주님의 백성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이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이 되게 하시고, 이 거룩한 선물을 나누는 모든 이들이 한 마음, 한 몸을 이루게 하시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소서.

간절히 구하오니,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신 하나이며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기억하시어,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일치를 드러내며 평화를 보존하게 하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백성들을 기억하시어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와 모든 성인들과 함께 하늘의 유산을 받게 하시고, 그들과 연합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 아멘

## 10. 주의 기도

†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 주님의 기도

이지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 주의 이름은 - 거룩합니다 -  
 아버지나 - 라 오게 하시며 - 아버지 뜻이 - 이뤄지이 - 다

하루의 - 필요를 채워 주시고 - 다른 이를 - 용서함처럼 우리  
 죄를 용서 하소서 - 유혹에 - 빠지지 않게 하시며 - 다만  
 악에서 - 구원 하소서 주의 나라와 - 권세와 - 영광이 아버지께 - 영원  
 히 영원히 - 모든 나라와 - 권세와 - 영광이 아버지께 - 영원  
 히 영원히 - 아 - 멘

©2013 Jieum Lee

## 11. 성찬의 나눔

†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빵을 떼는 동안 침묵할 수 있다.

◎ 하느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 성찬의 초대

빵을 떼 후에 주집전자는 다음 초대의 말을 한다.

†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 주여, 주님을 내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내 영혼이 곧 나오리이다.

## 영성체

성체와 보혈을 나눌 때에 다음과 같이 말한다.

† 그리스도의 성체 / ◎ 아멘

† 그리스도의 보혈 / ◎ 아멘

# 예수님 앞에 나와

S. Toollan

A E/A D/A E/A

1. 예수님 앞에 나와 떡과 포도주 생명의 양식 우리

A E/A D/A A F#m7

함께 나눌 때 예수님 우리 불러

D E A E/A A D A

새 나라 열어 주네 너희를 살리리 라 너희를 살리리

E A D Esus<sup>4</sup> E A

라 마지막 그 날에 너희를 살리리 라

2. 생명의 진리 이 떡, 죄를 사하는 약속의 이 잔  
떡과 잔을 나눌 때 그 안에 살아가리 이 세상 바로 살리
3. 인자의 살은 생명, 그의 흘린 피 생명의 약속  
그 살 그 피 새 생명, 주님이 주신 생명 우리의 오직 한 길
4. 주님은 부활이요 또한 세상의 생명이시니  
이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사네 그 생명 영원하리
5. 예수님 우리 위해 여기 사람의 아들로 오사  
영원토록 살아서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를 지켜주리

## 12. 영성체 후 기도

+ 기도합니다.

● 전능하신 하느님, 거룩한 십자가를 공경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외에는 아무 것도 자랑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파송 예식

### 13. 축복기도

+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 또한 그대와 함께 하소서.

+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당신 품에 안으시어, 더욱 믿음과 소망이 굳세게 해주시고 모든 죄가 용서받은 것을 확신케 하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 아멘

14. 파 송

†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 이 세상이 창조되던 그 아침에

(원제: 춤의 왕)

작사자 미상 Copland 곡



1. 이 - 세상이 창조되던 그 아침에 나는 아버지와 함께 춤을 추었다
2. 높은 양반들 위해 춤을 추었을 때 그들 천하 다 훑고 비웃었지만
3. 안식 일에도 쉬지 않고 춤췄더니 높고 거룩한 양반들 화를 내면서
4. 높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춤을 계속해 주 기란 힘이 들지만
5. 어리 석게도 그들 좋아 날 따지만 나는 생명이 다 결코 죽지 않는다



내가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때도 하늘의 춤을 추었다  
 어부 위해서 춤을 추었을 때에는 날 따라 춤을 추었다  
 나를 때리고 옷을 벗겨 매달았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끝내 땅속에 갇히지 않음 이후에도 난 아직 계속 춤춘다  
 네가 내안에 살면 나도 네 안에서 영원히 함께 살련다



춤 취라 어디서든 거 힘차게 멋있게 춤 취라



나는 춤의 왕 너 어디 있든 거 나는 춤속에 너 인도 하련다

## [#북아현 철거민에게 희망의 띠를 이어주세요.] : 누구를 위한 재개발인가요?

용산참사 4주기(2013년 1월 20일)가 지난 지금, 아직도 강제철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철거민들이 있습니다. 오늘(2013.3.27.기준)로 벌써 노숙농성 505일 째인 북아현도 그 중 한 곳입니다.

‘재임기간 중 강제철거는 없다.’ 이는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 시장으로 취임하며 호언장담하셨던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일주일 뒤 북아현 1-3구역 재개발 지역에 포크레인과 용역이 들이닥쳤고 건물에 사람이 들어선 채로 강제철거가 강행되었습니다. 이 날은 법원에서 제시한 조합과 세입자간의 중재를 위해 잠시 가게를 비운 날이었습니다.

강제철거는 없었던 서울시에 문의를 거듭한 끝에  
“내일 아침 챙겨보겠다.”라는 트위터 답멘션이 왔습니다.  
그 ‘내일 아침’은 아직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삶이 밀려나는 재개발 문제 앞에 서울시는 외면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워낙 재개발 문제가 이해관계 얽힌 소재라지만 챙겨보겠다는 말씀과는 달리 (수백여 통의 북아현 재개발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업서에도 불구하고) 면담자리조차 마련치 않는 태도는 실질적으로 방관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에 시청 앞 문화제와 기자회견도 진행했습니다. 당시 요구사항으로는 시민들이 보낸 북아현 문제해결에 대한 희망엽서에 답해주실 것, 법률에 보장되어 있는 공공임대 상가 건설을 위해 가시적인 노력, 용역업체직원을 포함하지 않고 해당 조합과 건설사가 철거민과 실질적인 면담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지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그 답변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재개발은 본래 낙후된 환경의 지역을 보다 살기 좋은 공간으로 바꾼다는 명목하에 추진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는 곳을 사는 것으로’ 바라보는 투기세력의 이해관계가 개입되고 마을 원주민은 살던 곳에서 쫓겨나 거리로 내몰립니다. 재개발 지역은 허허벌판으로 남고, 쫓겨난 주민들은 외곽으로 떠밀려 갑니다. 이전보다 더 낙후된 지역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낙후된 지역이라며 다시 재개발 구역으로 선정됩니다.) 그렇게 삶이 떠밀려 갑니다.

이에 대한 실질적이고 조속한 재개발 문제 해결 없이는 서울시의 마을 만들기 공약 역시 빛 좋은 개살구가 되기 쉽습니다. 재개발 문제는 분명 쉽게 해결될 일은 아니지만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삶의 문제입니다.

조금 더 생각해보면 비단 재개발에 국한된 문제도 아닙니다. 주거권의 실질적인 보장 없이는 집을 구해야 하고 방을 비워줘야 하거나 보증금 반환 걱정을 하고, 혹은 비싼 임대료 걱정을 하는 등,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주거권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쫓겨날 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이 있는 한 우리는 모두 이주민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착공식도 없이 슬그머니 공사가 강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합시다. 북아현 생존 대책위에서는 #북아현 농성장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문화제를 진행합니다. 7시~8시에는 혁명기도원에서 예배를, 8시부터는 음식과 상황 그리고 일상을 나눕니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주거권 현안에 대한 관심으로도, 생각과 마음을 나누고자 하는 관심으로도 환영합니다. 그러니 함께 합시다. : 아현역 1, 2번 출구 추계예대 방향 200m

글: 종이봉투(북아현생존대책위원회)

## 길찾는교회 / 길 위의 순례자 운동

### 1. '길찾는교회'가 뭐냐고요?

'교회 안의 교회'이고 '새로운 교회 운동'이며 '징검다리 교회'입니다.  
다른 교파에서 성공회로 오거나,  
성공회 안에 있는 다양한 경계인(境界人)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을 지향하죠.  
성공회 젊은 신자들을 위한 '선교회'이자 '훈련센터'를 지향하는  
'길 위의 순례자 Pilgrim On the Way'와 연대하는 아지트(Agit)이고요!

### 2. 일곱 가지 표지를 쫓는 일상수행자들

#### 하나. 우리는 본질적 영성을 지향합니다.

온 세상과 삶의 본질인 성 삼위일체 하느님과 더불어 춤추며 사는 영성을 살고자 합니다. 그러한 영성에 근거하여, 성서를 읽고, 그리스도교 전통을 이해하며,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 둘. 우리는 급진적 경계 넘기를 지향합니다.

에반젤리컬이나 리버럴 뿐 아니라, 기존의 다양한 틀과 경계를 넘어서는 신학적 사유와 신앙적 실천을 지향합니다. 이러한 급진적인 경계 넘기를 통해, 새로운 상상력으로 성서를 읽고, 그리스도교 전통을 재구성하며, 세상과 소통합니다.

#### 셋. 우리는 보편적 뿌리를 지향합니다.

성서 읽기와 그리스도교 전통에 대한 이해와 재구성, 그리고 세상과 소통하며 변화시키는 일은,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오랜 역할이자 뿌리였습니다. 특히 성공회는 '성서, 전통, 이성'이라는 특유의 리듬으로, 성 삼위일체 하느님께 뿌리를 내리고 춤추며 세상과 더불어 살아 왔습니다.

#### 넷. 우리는 지속적 갱신을 지향합니다.

성공회는 갱신이 완성된 교회가 아닌, 지속적으로 갱신하는 교회(Reforming Catholic Church)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갱신은 성공회 특유의 리듬은 '성서, 전통, 이성'을 재구성하는데도 적용됩니다.

#### 다섯. 우리는 온전함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완벽함이 아닌 온전함을 추구합니다. 일그러지고 못하고 아픈 모습 그대로 용납 받은 존재들이 하느님을 만나, 그 안에서 서로를 부둥켜안고 '서로 세워주기'를 하는 것이 온전함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으나, 선하신 하느님을 닮아 온전해져 갑니다.

#### 여섯. 우리는 언저리를 추구합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느님'(Incarnation)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교회와 세상의 언저리에서 작은 예수이자 길 위의 순례자로 살아갑니다.

#### 일곱. 우리는 길 위의 만남을 추구합니다.

길에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만남들이 이뤄집니다. 그리고 그 만남들은 때론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방

향과 길로 우리를 이끌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상상을 뛰어 넘는 길 위의 만남을 기대합니다.

### 3. 모임

- 1) 대안적 성찬 예배: 매주일 오후 4시, 성공회 서울 주교좌교회 어린이 예배실(시청역 3번 출구)
- 2) 세상과 이웃을 위한 모퉁이(CORNER) 모임: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성공회 대학로교회 4층(혜화역 3번 출구)
- 3) 그 외 영성 훈련 및 소모임: 기획 중.

<http://pilgrimagechurch.wordpress.com>

환대, 경청, 친밀함이 있는 공동체

길 위의 교회   
pilgrimage Church

## 연구공동체 바람부는세상 / 오순절 대안교회 길벗교회

연구공동체 <바람부는세상>은,

오순절교회의 신학도들과 젊은 사역자들로 구성된,

오순절운동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된 작은 모임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오순절교회 더 나아가 한국교회를 섬기기 위한 도구들을 준비하려 합니다.

우리는 20세기 오순절운동이 보여준 특정 교회, 특정 인물 중심의 흐름을 지양하고,

보다 보편적인 오순절신학의 세계를 펼치기 위하여,

오순절운동을 21세기 하나님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이론적, 실천적 출구로 새롭게 해석하고자 합니다.

오순절운동이야말로 미래 한국교회의 하나님나라 운동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 중 하나라고 확신하기에,

앞으로 그 주인공이 될 새로운 세대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려 합니다.

우리는, 보편적이고도 전위적인 신학적 실험의 장을 마련하고,

권위에 포획되지 않는 공동체적 삶의 자유로운 가치를 실천하며,

오순절운동이 나아가야 할 미래적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21세기 하나님나라 운동의 작은 토대를 세우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오순절대안교회 <길벗교회>는,

연구공동체 바람부는세상을 지원하는 교회 공동체이자,

고대의 영성과 포스트모던적 감수성을 아울러 추구하는,

한국 오순절교회에서 아직 시도되지 못한 전례적 예배모델을 고민하고 있는 예배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성장보다는 운동의 확장을 꿈꿉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 위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길벗이 되어주셨듯이,

길벗교회는 함께 길을 걷고 있는 길벗들을 위한 십터의 역할을 감당하려 합니다.

길벗교회는 우리의 길벗들이,

예배의 감격을 누리는 하나님나라 공동체의 시민으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자유로운 인격체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선교의 십자가를 지는 작은 예수로 성숙되기를 꿈꾸겠습니다.

[www.facebook.com/WindyWorld](http://www.facebook.com/WindyWorld)



**Windy World**

## 혁명기도원: 예수를 따라 혁명을 기도하는 사람들

혁명기도원은 2011년 4월 30일 노동절 전야제에서 첫 모임을 시작한 후, 지금까지 투쟁현장 여기저기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모임의 첫 참여자들은 대부분 당시 민주신학자 안병무의 <갈릴래아의 예수>를 읽던 세미나의 구성원들이었습니다. 안병무가 이해한 대로 예수의 행동이 정치적인 것이었다면, 정치적 주제가 드러나는 현장 한가운데서 예수의 이야기를 읽을 때에 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저희 생각이었습니다.

현장으로 나가는 모임을 구상하고 저희가 처음으로 찾은 곳은 노동절 전야제였습니다. 그곳에서 저희는 고대의 찬송시들과, 예수의 말씀들과, 예수에 대한 교회의 증언들을 읽었습니다. 그 날 이후 저희는 노동절 당일 거리행진 대열 뒤에서, 부평의 콜트콜텍 공장에서, 반값등록금 집회 대열 근처에서, 용역폭력의 현장이었던 명동 마리에서, 성폭력을 당하고 해직된 현대차 하청노동자의 천막 앞에서, 성탄절의 명동 거리에서, 강제퇴거의 상처가 남은 북아현동 곱창집 앞에서 계속 같은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그 때마다 저희를 놀라게 한 것은 성경 구절들과 현장 사이의 놀라운 일치였습니다. 저희는 한 번도 현장 기도모임을 위한 성경구절을 직접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혁명기도원의 모임에 사용되는 성경구절은 성공회가 사용하는 2년 주기로 된 “성무일과 성서정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의 시들은 모두 투쟁현장에서 고통 받는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었고, 복음서의 이야기들은 예수가 그들을 찾아가 고통을 나누고 상처를 어루만지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현장”은 마치 성서의 의미를 여는 열쇠와도 같았습니다. 기도회에 동참한 이들은 그들이 가진 신앙 - 우리 모임 안에는 무신론, 감리교, 장로교, 오순절, 성공회, 천주교 등 다양한 전통으로부터 온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 과 상관없이, 성서에 적힌 이야기와 현장의 이야기가 둘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외, 그리고 그로 인한 투쟁의 현장은 바로 우리를 성서의 세계로 이끄는 안내자였고 성서는 그 만남을 통해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 지점에서 예수를 통하여 “祈禱”하는 것과 혁명을 “企圖” 하는 것이 둘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혁명기도원은 앞으로도 현장 기도모임을 통해 성서와 기독교 전통의 혁명적 면모를 새로 발견해 내고, 현장에 싸울 힘을 불어넣는 활동을 계속 해 나가려 합니다.

[http://blog.jinbo.net/rev\\_pr](http://blog.jinbo.net/rev_pr)

